

사람을 취하리라

등장인물 : MC, 베드로, 예수님

찬양 :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(MR)

BGM : 토크쇼 오프닝(SNL),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

MC: 안녕하세요? “나는 가수다”에 이어 “나는 어부다”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○○○ 입니다.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바로 베드로 선생님이십니다.

BGM - 토크쇼 오프닝(SNL)

베드로: 안녕하십니까! 갈릴리에서 어부생활 40년차 베드로라고 합니다.

MC: 어서오세요. 요즘 날이 풀려서 고기가 제법 잡힐 것 같은데 요새 제철고기는 뭔가요?

베드로: 요맘때쯤 갈릴리 바다에서는 도다리가 많이 잡히지요. 그 물을 내렸다가 올리기만 해도 도다리가 도달도달 한답니다.

MC: 그렇군요. 무엇보다 뛰어난 어부는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40년간 어부생활을 하셨다고 하니 고기잡이의 달인이 라고 불려도 되겠군요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

베드로: 올해로 제가 45세입니다.

MC: 아니,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5살때부터 고기를 잡으셨다는 건가요?

베드로: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. 남들은 손가락 잡을 때 저는 낚시줄을 먼저 잡았고요, 7살 때 이미 가장 큰 상어를 낚아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바 있습니다.

MC: 정말 대단하시군요. 혹시 고기를 잡으실 때 선생님만의 노하우나 비법이 있을까요?

베드로: 네. 팁을 좀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어부라면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도전하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읽는 능력이 있어 물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, 수심 몇 미터 아래 있는지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야겠지요.

MC: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(박수 두 번) 지금 저희 뒤쪽으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요. 그러면 지금부터 베드로씨의 어부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베드로: (자석 물고기 낚시를 하면서)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. 초당 1마리씩 낚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속속속~ (잡은 고기들을 들고 포즈를 취한다)

MC: 와 정말 놀랍군요. 역시 어부경력 40년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갈릴리 베드로 선생님이었습니다.

해설: 베드로는 이처럼 갈릴리 마을에서 최고의 어부로 통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...

(BGM - 긴장감) / (효과음 - 바람소리, 파도소리)

베드로: 오늘따라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이상하구만.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다니... 이런 날은 없었는데...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..아고고..아고고....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.

예수님: 자네, 혹시 무슨 근심 있나?

베드로: 어부생활 40년만에 살다살다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.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없다니...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지...

예수님: 걱정하지 말게. 내가 도와주지.

베드로: (혼잣말로...) 행색을 보아하니 바닷사람도 아닌 것 같고, 고기잡이는 초짜이신 것 같은데...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거지??

예수님: 베드로야~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.

베드로: 네? 선생님!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 했습니다. 아침에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, 피곤하기도 하고.. 저 곳은 방금 실패한 곳인데요~ (고민하다가) 선생님! 말씀에

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.

[찬양/율동 : 깊은데로 가서]

(베드로 상반신)

베드로: 어~~어~~(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무거워서 당황, 배가 몹시 흔들림) 물고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네! 어이! 요한! 야고보!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~~

(영상클립 : 고기잡이 다큐 동영상 삽입)

(음악 -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)

(동시에 해설 목소리 진행)

해설: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물고기도 순종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

(단독샷)

베드로: (무릎을 꿇고) 주여! 나를 떠나소서! 나는 죄인으로소이다

(단독샷)

예수님: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!

(베드로, 예수님 상반신)

베드로 엎드려 있고,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.

해설: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

부르셔서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. 우리도 베드로 처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